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RE WILL COME A DARKNESS (3부작)

가제 : 어둠이 내리면

저자 : Katy Pool

출판사: Henry Holt

발행일: -

분량 : 약 453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수백 만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영어 판권 계약이 체결된 판타지 3부작**

*** 스페인, 프랑스, 독일, 브라질 판권 계약 완료**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갈등으로 무너지려 할 때마다 질서를 되찾고 평화를 지킨 일곱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여 어리석은 인간이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2천 년 넘게 안전하고 평온했던 세상에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조짐이 나타난다. 선지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취를 감춘 지 100여 년이 흐르고, 이들을 따르고 지키던 이들이 대를 이어 ‘최후의 빛이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수상한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했다. 선지자와 선지자가 내린 네 가지 능력을 보유한 ‘선택된 자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나타나 사라진 선지자의 뜻을 지키던 여섯 개 도시를 하나씩 불태운다.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직 선지자와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을 받드는 행위부터 중단해야 하는 일명 ‘목격자들’의 반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죄 없는 사람들은 이들이 시작한 과격한 반란에 살 곳을 잃고 매일 불안에 떠다. 세상이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던 그 때, 암흑의 기운과 맞설 다섯 명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난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큰 혼란에 빠진 이 다섯 명은 이미 시작된 어둠의 기운을 몰아낼 수 있을까?

세상과 인간을 지키는 선지자 중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은 여섯 명이다. 그리고 수천 년 전, 이 선지자들이 머무른 곳마다 그를 지키고 따르는 수호자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여섯 개의 도시에서 피부색도, 문화도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왔다. 여섯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존재로 꼽히는 팔라스가 일으킨 곳, 팔라스 아토스는 ‘믿음의 도시’라 불리며 중심지로 여겨졌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변 지역에서 시작된 잔혹한 살인의 그림자가 팔라스 아토스에도 나타난다. 쥐도 새도 모르게 표적을 찾아와 목숨을 빼앗은 뒤 희미한 손자국을 남기는 살인자, ‘페일 핸드’가 이곳까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미 수십 명이 곳곳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범인은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를 잡아들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과 달리 은근히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페일 핸드는 아무나 무작정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사악하게 괴롭히는 자들만 골라서 없앤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팔라스 아토스에서도, 선지자들의 뜻을 지키는 성직자들과 고위직 관리들만 머무는 하이시티에서 살인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도 가난한 시민들이 사는 로우시티로 직접 찾아가 예쁘장한 소년, 소녀들을 골라 ‘도와줄 일이 있다’며 데려간 뒤 해서는 안 될 짓을 자행해온 성직자였다. 그가 캄캄한 밤에 은밀한 범죄 행각을 벌일 때 찾아가 목숨을 빼앗은 페일 핸드의 진짜 이름은 에피라, ‘피의 은혜’를 갖고 태어난 선택된 자였다. 에피라가 도시를 돌며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죽어가는 여동생 베루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비슷한 시기에 이웃 도시 헤라트는 자신들을 ‘목격자들’이라 칭하는 폭도에 완전히 무너진다. 왕궁을 급습해 불을 지르고 선택된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살육을 시작한 이들의 공격에 왕과 왕비도 사라지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다 난민이 되어 주변 도시로 살 곳을 옮겨야 했다. 헤라트의 유일한 왕자, 하산은 온 왕궁이 불타오를 때 겨우 혼자 빠져 나와 팔라스 아토스로 숨어들었다. 예로부터 헤라트의 왕족은 모두 선택된 자로 태어나 특별한 능력을 지녔지만 혼자 그 능력을 갖지 못한 하산은 생사도 알 수 없는 부모님의 행방을 찾고 모든 도시에서 선택된 자들을 골라 없애려는 목격자들의 무모한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려면 이들을 선동하는 자, 히에로판트부터 찾아야 한다.

피의 은혜, 눈의 은혜, 마음의 은혜, 심장의 은혜까지, 선지자들이 선택된 자들에게 부여한 네 가지 특별한 능력 가운데 가장 드물고 뛰어난 능력으로 꼽히는 눈의 은혜를 가진 안톤은 사물과 인간 모두가 가진 기운, ‘에샤’를 읽고 감지할 수 있어서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안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그 능력을 감지한 수상한 여자가 찾아온다. 꼭 부탁할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그녀는 안톤이 선택 받은 자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 과연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안톤이 고민하던 그 때, ‘언어를 지키는 자’의 아들로 태어나 그 신성한 역할을 물려 받기 위해 수련을 이어가던 주드는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아직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마지막 일곱 번째 선지자를 마침내 찾았으며, 이미 시작된 암흑의 시대에 맞서 선지자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줄 수호자 역할을 주드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주드가 태어난 날, 16년 전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아버지의 설명에도 주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 때문에 두려움부터 느낀다. 언어를 지키는 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 탐해서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욕구가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쫓겨난 왕자, 잔인한 살인자,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던 소년, 불안에 떠는 수호자, 그리고 다 죽어가는 소녀, 이 다섯 명이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총 3부작으로 완성될 판타지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케이티 풀(Katy Pool)은 극작가인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연극의 구성과 글쓰기를 배웠다. UC 버클리에서 역사와 영어를 공부하고 현재 웹 사이트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ABSENCE OF SPARROWS

가제 : 사라진 참새들

저자 : Kurt Kirchmeier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약 250 페이지

장르 : 9세 이상 소설



*** 온 몸이 유리로 변해버린 사람들, 기괴한 전염병이 퍼진 세상에서 아프게 성장하는 소년 이야기**

무더운 7월 말, 형과 함께 밖에서 실컷 뛰어 놀 생각에 잔뜩 신나서 나갔던 벤은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자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기상 캐스터라도 된 것처럼 ‘폭풍이 올 것 같은데’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형 피트의 말이 마침내 맞아 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냥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와는 뭔가 다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새들이었다. 평소에도 새를 무척 좋아해서 작은 소리만 듣고도 어떤 새인지 알아맞힐 만큼 새 박사인 벤은 삼촌 네 정비소 앞까지 도착했을 때, 참새들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무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고개만 빼꼼 내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직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종종 뛰어다니며 짹 짹 울어야 할 새들이 저러는 건 분명 인간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아니나다를까, 벤의 불길한 예감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길에 나와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유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괴이한 일은 먼저 폭풍이라도 불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림책이나 영화에서 본 증기기관차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회색 빛이 도는 짙은 연기가 하늘 한 가운데서 몽게몽게 피어났다. 보통 연기는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데 이 수상한 연기는 고체처럼 위치도 바뀌지 않았다. 하늘은 한층 험악해져서 사방에서 강풍이 불어 닥치는데 연기는 미동도 하지 않으니 정말 이상했다. 두 조카를 발견하고 정비소에서 뛰어 나온 단 삼촌에게 이끌려 벤은 형과 함께 일단 삼촌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바깥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그런데 이웃집 크렌달 씨가 길 한복판에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상상황을 사진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한 듯 한 손에는 플라로이드 카메라도 들려 있었다. 하지만 마냥 신기하다고 감탄하기에는 어딘가 섬뜩한 분위기를 다들 느꼈는지 크렌달 씨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전부 실내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눈 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크렌달 씨가 시커먼 연기를 향해 셔터를 누르고 곧바로 카메라에서 나온 인화지를 뽑아서 공중에 휘휘 흔들 어대고 있을 때, 하늘 쪽으로 뺨은 오른손 끝이 새카맣게 변한 것이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곧 손목은 물론 팔꿈치까지 빠른 속도로 검게 변해갔다. 벤과 피트 뿐만 아니라 들어오라고 재촉하던 크렌달 씨의 아내와 다른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크렌달 씨는 온몸이 그렇게 굳고 말았다.

잠시 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짙은 구름도 모두 사라졌다. 길 한복판에는 동상이 되어버린 크랜달 씨만 우뚝 서 있었다. 다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웅성대는 사이, 벤은 형이 성큼 다가 손으로 두드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톱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으로도 딱딱하게 굳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유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뉴스는 삼시간에 곳곳으로 퍼지고, 벤과 피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멀쩡하던 하늘에 뿌연 구름 혹은 연기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밖에 나와 있던 사람이 유리로 변해버린 일은 두 사람이 사는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뉴욕, 뉴멕시코는 물론 이집트, 저 멀리 일본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 누가 손쓸 틈도 없이 굳어버린 사람도 크랜달 씨 혼자만 아니었다. 벤은 눈 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참새가 보인 반응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제 크랜달 씨는 어떻게 될까? 저대로 평생 굳어 있어야 할까? 전 세계에서 괴상한 기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지만 누구도 정확한 원인이나 유리가 된 사람들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은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극심한 불안에 휩싸인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이 사태는 무서운 전염병이며,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외치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벤은 형 피트가 일명 '목소리'로 불리는 그 사람의 말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우리 전염병'이라 이름 붙여진 무서운 병은 날마다 예고 없이 찾아와 모두를 공포에 빠뜨린다.

바람이 거세던 어느 날, 던 삼촌까지 유리로 변하고 갑자기 무너진 돌에 맞아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삼촌의 '파편'이 온 집안에 흩뿌려진 것을 보면서 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잠기는데, 형은 목소리가 전하는 지시에 더 깊이 빠져든다. 급기야 아빠도 유리로 변하고, 누군가 치료법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온 가족이 결정하지만 피트는 무서운 해결책을 내놓는다. 유리로 변한 희생자가 처음에는 띄엄띄엄 나타나다가 갈수록 무섭게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미 굳어버린 사람들을 한 날 한 시에, 한꺼번에 망치로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트의 이 확고한 믿음은 라디오의 '목소리'가 내놓은 이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두려움에 잠식된 엄마까지 형의 말에 동의하자 벤은 혼자 아빠를 지켜야만 하는 궁지에 몰린다. '목소리'가 정한 시각은 점점 다가오고, 두 손에 망치를 굳게 쥐 채 다가오는 형과 엄마를 벤이 혼자 막을 수 있을까? 독특한 소재로 열살 소년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상실과 책임의 의미를 배워 나가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가득한 성장 소설이다.

<저자 소개>

쿠르트 키르히마이어(Kurt Kirchmeier)는 캐나다 서스캐처원에 살면서 「Abyss & Apex」, 「Weird Tales」, 「Shimmer」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조류 사진작가로도 활동 중이며 「Photonews Magazine」, 「Living Bird」 등에 사진이 실렸다.